



기획시리즈

조경수목 산책 (X II)

— 단풍나무류 —



임경빈

아카시아 연구회장



▲지리산 피아골 단풍, 1985. 10. 23.

1. 단풍나무류 일반

단풍나무 과에는 두 가지 속이

있으나 그 중 단풍나무 속이 중요하다. 단풍나무 속에는 약 200종이 알려지고 주로 북반구의 온대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대개가 낙엽수종이고 또 잎은 손바닥 모양의 장상(掌狀)을 이루는 것이 많

고 열매는 두 개가 쌍으로 붙고 날개가 발달해 있어서 단풍나무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각종의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조경적 가치가 높은 것에 단풍나무(Acer palmatum), 당단풍나무, 복자기나무, 복장나무, 고로쇠나무, 신나무, 산겨릅나무, 시닥나무 등이 있고 외국산 수종으로 중국단풍나무, 네군도단풍나무, 은단풍나무, 사탕단풍나무 등이 있다. 단풍나무 속의 나무들은 대개 아름다운 조경수종으로 원예가들이 이것을 재배하면서 많은 품종과 변종을 만들어 내어 단풍나무 전문가가 있어야 할 정도로 그 품종의 식별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공원이나 집 주변에 흔히 심는 것으로 단풍나무가 있는데 어린 가지가 적갈색이고 잎은 길게 5~7개(간혹 9개)로 갈라진다. 일본에 있어서는 이 종에 대한 많은 품종과 변종이 기록되고 있다. 단풍나무를 닮은 것에 당단풍(唐丹楓)나무가 있으나 장상맥(掌狀脈)이 9~11개로 그 수가 더 많다. 당단풍나무는 높은 산에 나는 북방 수종인데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고 설악산의 가을을 물들이는 수종이다.

3개의 소엽(小葉)을 가진 것에 복장나무와 복자기나무가 있다. 복장나무는 이북의 추운 곳에 자라고 잎에 가는 거치가 있다. 그러나 복자기 나무는 잎에 가는 거치가 없다. 복자기나무의 단풍은

지나치게 고투서 산과 바위와 계곡의 물이 흠뻑 영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다.

잎이 3갈래로 얇게 갈라지는 것에 신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지만 좋은 단풍을 만들어 낸다. 밀원수목으로서도 한 몫을 한다.

고로쇠나무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나 수액을 채집하는 자원 식물로 되어 있고 줄기에서 받은 물을 약수 또는 폴리수로 흔히 부르고 있다.

높은 곳에 나는 산겨릅나무는 잎이 3~5갈래로 얇게 갈라지고 어린 가지는 녹색이고 줄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들어 온 것에 네군도 단풍나무가 있다. 들어온 지가 오래된다. 미국원산으로 외국에서는 조경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만그만한 나무로 취급되고 있다. 어린 가지가 녹색이고 가지가 성큼성큼 뻗어 자질구레한 기교가 없으나 크게 자라서 좋은 녹음을 만들어 낸다. 3~5개의 소엽으로 되어 있다.

은단풍나무도 미국 원산인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곳곳에 심어진 사례가 있다. 가지가 깊게 쪽쪽 자라서 시원스러운 맛은 있으나 뿌리가 얇게 들어가서 바람에 잘 넘어가는 단점이 있다. 자람이 빨라서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인상을 풍겨 주는 나무다.

사탕단풍나무는 북미주 북쪽지대에 분포하고 단풍든 한 잎새가 캐나다 국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캐나다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줄기에서는 수액이 채집되는데 메이플시럽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를 여행하다 보면 식당의 아침식사에 팬케이크라는 것이 종종 나온다. 이것은 밀가루 지짐이 비슷한 것으로 버터와 메이플시럽을 쳐서 먹는 것인데 맛이 좋다. 캐나다에서는 많은 양의 메이플시럽이 얻어지고 있다. 캐나다 상공을 가을에 비행기로 날면 사탕단풍나무의 붉은 단풍으로 전 국토가 불타는 것같이 보인다. 이러한 황홀이 그 이유로 하여금 국기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2 단풍나무류의 명칭

단풍나무는 한자로는 丹楓으로 쓸 수 있으나 흔히 단풍나무 척(槭)자를 쓴다. 색목(色木)으로도 말하는데 색목이라 하면 중국 쪽에서는 주로 신나무를 뜻한다. 그 이유는 신나무의 잎은 염료가 되고 중국인들이 감색으로 옷감을 물들였기 때문에 색목이란 이름을 얻었다. 신나무의 목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하여서 물지게 같은 담봉의 재료로 흔히 사용되었다.

복자기나무는 우근자(牛筋子)로 말하는데 재질이 질겨서 소의 힘줄 같다는 뜻에서 얻어진 한자

명이 아닌가 한다. 지난날 만주지방에 있어서는 복자기나무로 마차 바퀴의 축목(軸木)을 만들어 썼었다.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바퀴 재료로는 박달나무가 제일이고 시무나무가 그 다음이고 복자기나무가 세번째라 해서 이 나무 목재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풍수(楓樹)라 하면 특히 신나무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물명고(物名考)라는 책에 풍(楓)자에 대한 설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데 있다. 즉 그곳을 보면 「풍」은 높게 자라고, 보기에 사시나무를 닮았으며 잎은 둥글고, 잎이 3갈래로 갈라지고, 꽃색은 희고, 열매는 계란만 하며 목리는 푸른색을 띤다고 했다. 이것은 단풍나무가 아니고 외국수종의 하나인데 영명으로 스위트검(sweetgum)으로 말하는 수종으로 미국과 중국에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풍나무라 하면 현재 우리는 단풍을 뜻하지 않고 스위트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나무는 어린 가지에 콜크질의 날개가 잘 발달해서 식별이 잘 된

다. 스위트검의 가을 단풍도 일색이다.

일본사람들은 단풍나무류에 대한 명칭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가에데」인데 한자로는 홍엽(紅葉)을 모미지로 읽고 외수(蛙手, 개구리 손)를 가에데로 읽는다. 모미지류는 잎의 열편이 깊게 갈라지는 종류에 붙이는 명칭이고 가령 단풍나무같은 것은 잎이 깊게 5~7갈래로 갈라지는데 모미지로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식물학상으로 붙인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예외의 경우가 있다. 가에데라 하면 잎의 모양이 개구리 손을 닮아 열편이 얇게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 가령 고로쇠나무의 잎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에데라는 말을 어미(語尾)에 붙여서 나무이름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충 그러한 경향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으로 알뜰히 따져서

는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물명고에 『하마수수(蝦蟇手樹)』란 나무 이름이 등장한다. 하마라 하면 두꺼비를 말하는데 두꺼비손나무라는 뜻이다. 두꺼비나 개구리나 손발의 생김새는 비슷한 것으로 하마수수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즉 「잎 모양이 흡사 두꺼비의 손바닥을 닮았고, 가을이 되면 선홍색의 단풍을 이루어 감상할 만하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단풍나무라 하고 그 중 중국에서 들어온 것에 사시사철 붉은 잎을 다는 것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곳 설명 중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풍나무의 잎은 두꺼비 손바닥과 다르다. 물명고의 설명을 조심스럽게 해석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풀이는 우리를 납득하게 해 준다. 그것은 다조수(茶條樹)라는 단풍나무류의 나무에 대한 설명이다. 즉 「이 나무도 하마수의 유(類)이



▲고로쇠나무의 잎과 열매



▲노르웨이단풍, 독일 프라이부르크, 1988. 8. 2.

다. 그러나 잎이 좁 긴 편이다. 조 선말로 신나모라 부른다. 했다. 신나무의 잎은 얇게 갈라져서 두꺼비 또는 개구리 손을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하마수류(두꺼비 손 나무류)로 한 것은 타당하다.

이것을 고찰하던대 일본 명칭 가에데(개구리 손)는 하마수(두꺼비 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두꺼비보다는 개구리 쪽이 더 흔하고 두꺼비처럼 징그럽지도 않다. 일본의 나무 이름 문화는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간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종종 있다고 생각된다.

3. 고로쇠나무 이야기

우리 나라에 나는 단풍나무류 중에 가장 높게 그리고 굵게 자라는 수종은 고로쇠나무이다. 큰 나무는 수고가 20m에 줄기직경은 50~60cm에 이른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 각지에 자라고 있고 일본, 만주, 중국의 온대지방, 아무르지방, 사하린 등 넓은 면적에 걸쳐서 자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이름은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고 중국에서는 색목(色木) 또는 수색수(水色樹)로 쓰고 있다. 그러나 신나무를 색목으로 흔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대체로 다섯 갈래로 갈라지나 그 중에는 세 갈래 또는 일곱 갈래의 것도 있다. 잎의 열편에는 거의 거치가



▲고로쇠나무 수액채집, 선암사, 1987. 3. 5.

없고 끝은 뾰족하다. 엽신(葉身)과 잎자루의 접착부 즉 엽각(葉脚 또는 葉底)은 대체로 심장형이고 잎 뒤 맥에 따라 가는 털이 나 있다. 날개열매(시과, 翅果)에는 털이 없고 쌍으로 달리는 시과의 각도는 대체로 직각이나 책에 따라서는 예각의 것도 있고 둔각의 것도 있다고 했다. 수피는 암회색으로 미끈한 편이나 오래된 나무에 있어서는 세로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

고로쇠나무는 비옥한 깊은 땅을 좋아하고 곡간 또는 곡간 근처의 산허리 부분에 잘 나타나고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 햇볕을 좋아하는 양수(陽樹)이다.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만드는 나무이다. 어린잎은 먹기도 하고 차의

원료로 쓰기도 한다. 수액은 약용으로 쓰이는데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으로서는 사탕단풍나무 다음으로 높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목재는 가구재, 기구재, 건축재 등으로 소중한 용도를 가지며 단풍나무 목재의 대표로 되고 있다. 변재는 담갈색이고 심재는 분홍색을 띤 담갈색인데 목리(木理)가 치밀하고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로쇠나무에는 몇 가지 변종이 알려지고 있다. 털고로쇠나무는 잎 뒤에 갈색의 털이 나 있다. 그리고 시과의 각도가 거의 수평(180도)에 가깝고 잎이 보통 7갈래(간혹 9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왕고로쇠나무라고 한다. 일본에 있어서는 고로쇠나무의 변종 또는 품종으로서 18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백운산 일대는 고로쇠나무가 많기로 이름나 있고 그 수액이 많이 채취되고 있다. 산 아래쪽에 있는 나무가 더 굵고 수도 많다. 그것은 고로쇠나무는 많은 토양 수분을 요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있기에 수액을 많이 분비하게 된다.

필자는 1987년 3월 상순에 전남 승주군 선암사 주변 조계산에 자라고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다. 선암사는 순천시로부터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선암사는 해발고 약 350m 지점에 위치하고



▲고로쇠나무, 선암사, 1987. 3. 5.

있고 이곳에서 서쪽을 향해서 올라가면 해발고 약 630m 되는 곳에 고개가 나타나는데 이 고개 이름이 굴목치이다. 어려운 길이 아니고 산이 순한 편이다. 조계산의 꼭대기는 평평한 평지의 지형을 갖추고 해발고는 520m쯤 되는데 가다가 보면 다시 650m쯤 되는 고개가 나타나고 이 고개를 넘어 내려가면 송광사에 이르게 된다. 산 위 평지에는 물이 많고 이것이 조계산 수목의 자람을 왕성하게 해 주는 발판이 되고 있다. 조개가 껍질을 벌리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조계산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혼자서 흐뭇하게 긍정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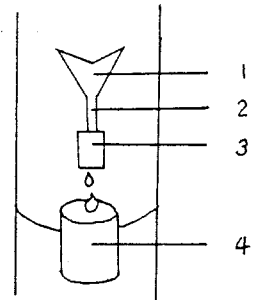
고로쇠나무 수액채집은 주로 선암사로부터 굴목치 사이에 있는 계곡지역의 굵은 고로쇠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기록은 없으나 동네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약 120년 전부터 수액이 채집되고 있다 한다.

수액채집은 경칩전후 3일간 약 1주일간이 가장 알맞고 그 사이에 얻어진 것이 약효가 더 좋다고 한다. 전에는 이때에만 채집을 했지만 지금은 수액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이면 계속 채집을 하고 있다. 양력으로 말하면 2월 20일쯤부터 3월 15일까지 채액이 실시되고 있다. 이 동안은 약 한 달간이지만 날마다 수액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기후상태에 따라 많이 나는 날이 있고 물이 안나오는 날도 있다고 하며 한 달 중 물이 흐르는 날은 불과 5~6일 밖에 안된다고 한다. 물이 흐르지 않게 되는 기후 조건이란 구름이 많이 끼이는 날,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그리고 낮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영상이라도 1~2도(섭씨) 쯤 되는 때라고 한다. 수액이 잘 흐르게 되는 조건이란 밤기온이 영하 2~5도 쯤 되고 낮기온이 6~9도 쯤 되어서 바람이 없고 청명한 날이다. 이러한 조건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탕단풍나무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다고 본다.

고로쇠나무의 줄기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는 이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나무줄기의 온도도 내려가고 이때 줄기 안의 압력이 떨어진 다. 이와 같이 되면 나무뿌리는 땅속의 물을 흡수해서 나무줄기 속으로 보내 그곳 압력(팽압)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뿌리는 온 밤동안 물을 보내는 일을 힘차게 하게 된다. 밤이 지나 낮이 되어 온도가 올라가면 나무 줄기 내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때 수피에 상처를 주게 되면 줄기 속의 물은 팽압을 이기지 못해서 밖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그래서 밤기



1. 상처부 2. 수액이 흐르는 길
3. 조릿대 잎 4. 수집통

▲고로쇠나무 수액채집모식도(1987.3)

온이 내려갈수록 또 지나쳐서는 안되지만 낮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액이 흐르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 이외에 다른 내용의 설명도 있다. 그것은 탄산가스(CO₂)의 온도에 따른 수축과 팽창에 관련되는 것이다. 탄산가스는 호흡작용으로 줄기 내에 발생해서 물을 통과시키는 도관 주변의 섬유세포조직 안에 축적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물에 녹는다. 밤 중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탄산가스가 녹게 된다. 그 뒤 낮이 되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에 녹아있던 탄산가스가 팽창하게 되고 물이 통과하는 도관세포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 줄

기 내부의 팽압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수액은 상처받아 끊어진 도관세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탄산가스는 다시 수축하게 되고 섬유세포의 물에 녹는다. 이 결과 줄기 내에는 다시 마이너스 압력(부압, 負壓)이 생기고 뿌리 쪽부터의 수액을 빨아올리게 된다.

이처럼 고로쇠나무 수액의 유출량은 나무 줄기의 온도변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 아침 햇살이 나무 줄기의 동쪽편을 쬐이면 동쪽에 만든 상처에서 더 많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한낮 해가 남쪽을 쬐이게 되면 남쪽 상처에서 수액이 더 흘러나오게 된다. 오후에는 서쪽에서 더 흐른다.

수액채집을 위하여서는 나무 줄기의 아래쪽에 V자형의 상처를 내고 껍질을 제거하고 그 아래의 껍질을 벗겨서 물이 흐르는 길을 내어준다. 밑에 조릿대 잎을 삽입하고 잎을 따라 흘러내리는 수액을 깡통에 받는다. 지금은 이보다 더 개량된 채취법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에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해서 수액을 모았다.

채액량은 30~100년생 한 나무에서 총 7리터 정도에 이르지만 개체에 따른 변화가 크다고 한다. 선암사 쪽에는 약 3500 그루가 채액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줄기 직경 20~30cm의 나무는 어려서 채액하지 않고 있다.

채액이 끝나면 상처가 치유되는데 6월말까지는 상처가 아물어

든다. 고로쇠나무의 새싹은 5월 중하순부터 터서 자라는데 이때부터 상처의 치유가 활발해진다.

채액한 물을 찬 곳에 두면 약 1주일간은 잘 보존되며 그 지방에서는 수액을 골리수(骨理水 또는 骨利水)라 부르며 신경통, 치질, 위장병, 허약체질 등에 효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뼈를 튼튼히 한다고 해서 골리수로 부른다고 했다. 고로쇠나무의 수액은 거의 색깔이 없고 약간 단맛이 있고 약하게나마 자극성이 있는 향기를 띠고 있다.

고로쇠나무는 결실량도 비교적 풍부하고 종자발아율도 낮지 않으나 발아에 긴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관찰에 의하면 자연림 중에서는 고로쇠나무의 어린 나무를 찾기 힘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대단히 적다. 이 점은 고로쇠나무 숲의 갱신을 생각해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선암사 주변 고로쇠나무가 서 있는 숲의 상태를 보면 지피식생으로 조릿대가 밀생하고 있어서 고로쇠나무 갱신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고로쇠나무의 큰 묘목을 심어주고 경쟁관계에 있는 조릿대를 억제해 준다는 것은 고로쇠수액 생산과 그 문화를 유지하는 뜻에서 필요한 것으로 믿는다.

4. 단풍나무와 곱닥타

나는 1970년대에 서울 대방동



▲ 단풍나무의 잎과 열매, 이리원광대 구내, 1993. 5. 25.

에 집을 지어 좀 살다가 그 집이 전연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 나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집사람이 뇌종양으로 본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나는 아무런 저항없이 그대로 집을 넘겨주었다. 훌훌 손을 털고 그 집을 떠난 것이다. 내가 한 평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가장 한스러운 생의 한 마디가 그 집의 사연에서 굵게 매듭되기도 했다. 인간에게 원래 소유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판에 이런 것에 집착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인 줄 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그러나 그 집의 뜰에 나는 각종 나무를 심어 마치 수목원의 일부를 연출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가물가물 추억을 더듬어 보면 칠엽수, 대추나무, 백송, 일세백일홍(一歲百日紅), 미선나무, 벚나무, 음나무, 향나무, 무궁화,

버드나무, 단풍나무, 리기다소나무, 청미래덩굴, 노박덩굴, 해송, 소나무, 수국 등등이 머리에 떠오르고 그 나무들의 모습과 위치까지도 말할 수 있다.

미선나무, 일세백일홍, 능소화, 백송 같은 것을 일찌감치 죽여 버렸고 고전하고 있는 것에 칠엽수와 단풍나무가 있었는데 잎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려 들어가고 끝내 변색한 잎은 말라붙어 죽게 되고 해서 나의 마음을 초조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뜰의 흙의 조건이 어떠한가 하면 집을 짓고 난 뒤의 각종 쓰레기, 벽돌, 시멘트, 나무 조각 등등으로 메워 놓은 것이었다. 비가 와도 금방 말라 땅의 건조가 심했고 강한 알카리성의 토양이었으며 부드럽고 가는 흙의 양은 태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입지조건에 생태 특성을 다르게 하는 각종 나무를 심어 모두 잘 살아달라고 부탁한 나의 요구가 원래 잘못된 것이었다. 올바른 환경을 주고 적응해 달라고 한 것은 얼토당토 아니한 것이었다. 나무의 성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당시 나의 욕심은 이 한계를 넘어서었던 것이다. 단풍나무의 잎도 그래서 말라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관련해서 중국의 고사 곽탁타(郭橐駝)가 생각한다. 성이 곽이요, 이름(별명)이 탁타이다. 탁타의 뜻은 곱추 또는 둥이 튀어나온 낙타이다. 곽탁타



▲복자기나무의 단풍, 설악산 수렴동 계곡, 1984. 10. 19.

전은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작으로 그는 당송팔가문(唐宋八家文)의 한 사람으로 그의 문장에는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백성들의 삶을 꿰뚫어 보고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반항정신이 팽만해 있다. 곽탁타전이 그 중의 하나이다. 곽탁타라 하면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자 또는 정원사를 뜻하기도 한다.

곽탁타의 본 이름은 알 수 없고 병으로서 곱사가 되어 길은 갈 때 모양이 엷드린 낙타 같아서 마을 사람들이 「타」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이 별명을 듣고 「좋다. 나에게 알맞은 이름이다.」하고 원래의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도 탁타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장안의 서쪽에 살면서 나무 기르는 것을 업으로 했다. 그의 기술이 뛰어나 무릇 장안에 사는 부자사람들이 정원을 만들 때 또는 과수원 경영자들이 그를 모셔다가 신세를 지곤 했다.

곽탁타가 옮겨 심은 나무는 잘 살아 붙고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살펴도 그를 흉내낼 수가 없었다.

「곽씨의 나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자라는 것입니까?」

「나는 말입니다. 나무를 오래 살게 할 수도 없고 또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나무의 성품을 도와서 자라게 할 뿐입니다. 무릇 나무의 성질이라는 것은 뿌리는 길게 뻗기를 원하고 가꾸기는 부드러워야 하며 흙은 옛 흙이 좋고 뿌리를 다질 때에는 조심스럽게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그 뒤부터는 나무줄기를 흔들어도 불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처럼 알뜰하게 생각해서 심은 뒤에는 내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이 내려준 것이 완전하게

되어 그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의 자람에 해를 주지 않을 뿐이고 나무가 열매 맺고자 하는 성품을 억제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무를 크게 한다던가 무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열매 맺도록 한다던가 많이 맺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뿌리를 굵히고 흙은 다르게 하며 가꾸기가 지나쳐서 미치지 못하니만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무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살피고 어루만지고 떠났다가는 다시 되돌아와서보고 때로는 손톱으로 껍질을 긁어서 죽지나 않았나 살피고 줄기를 흔들며 뿌리가 단단히 내렸는가를 보는 사람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날로 나무의 성품으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로는 나무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못살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못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꺾타타 내가 어떻게 더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그는 말했다.

사람이 물어보기를 「당신이 지금 한 말을 나라 다스리는데 적용해 보면 어떨 것인가.」했다.

「나는 정원사이므로 나무의 일은 알지만 그 밖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을에 살면

서 보면 우두머리에 선 사람이 번거로운 명령과 지시를 너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편히 알고 있는 것을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주 관리들이 와서 소리칩니다. 명령지시이니 농사에 힘쓰고 수확을 잘하고 벼들 일에 정성을 쏟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닭과 돼지를 살찌게 하여라 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복을 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 손뼉을 치며 사람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은 관리의 비위를 맞추어 뇌물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삶이 운택해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달림으로서 사람들은 역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나의 나무심기 요령에 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종원은 꺾타타전을 엮으면서 진정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묻는 사람이 만족스러운 인상

으로 다시 물었다. 「좋지 않습니까. 내가 나무 키우기를 몰아서 사람 키우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해서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꺾타타전의 이야기는 끝난다. 이 전기의 장르는 다른 작가들이 어떤 개인의 전기를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유종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의 주장을 서술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는 인물의 전기를 펼쳐본 했다.

장자(莊子)에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소나 말을 치는 자와 무엇이 다를 바 있는가. 다만 소와 말을 해치는 것을 제거하면 될 뿐이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꺾타타의 나무 키우기 요령과 합치되는 것이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도 큰 교훈을 남긴다. 그 뿌리를 굵히지 않고 옛 흙을 존중한다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도 소중한 기술의 포



▲당단풍나무, 설악산 오색약수터, 1981. 10. 28.

인트이다.

5. 풍교야박과 산행(山行)의 시

단풍나무의 아름다움이 담긴 한시에는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과 두목(杜牧)의 산행(山行)을 들 수 있다. 모두 명시로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잘 회자되고 있다. 살펴본다.



▲은단풍나무의 앞, 이리 원광대학교 구내, 1993. 5.

풍교야박의 시

月落烏啼霜滿天
월락오제상만천
江楓漁火對愁眠
강풍어화대수면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의한산사
夜半鐘聲到客船
야반종성도객선

달은 떨어지고 까마귀 울어 내린 서린 천지에 가득하다. 물든 강가 단풍나무 그리고 번쩍이는 고기잡이 불 뒤송송 잠자리는 선부르고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 한 밤 중에 나그네 배에 이른다.

이 시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장계는 이 밖에도 시를 썼을 것이나 이 시 한 수만이 명작으로 애창되고 있다. 위대한 시인이 되자면 꼭 여러 편의 시를 남겨야 한다는 법은 없고 한 수로서도 족한 것이

다. 이 시 중 풍교는 중국 소주(蘇州)의 서쪽 교외에 있는 다리라 한다.

장계가 어떤 심정으로서 이 시를 읊었는가에 대하여서는 알 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황홀한 단풍나무의 숲이 떠오르고 있는데 매력이 있다. 그런데 시가 유명하다 보니 이 시를 익살 갖게 해석하는 일이 옛적부터 전해지고 있어서 그 한 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계가 나그네 길에 하룻밤을 자기로 하고 여자를 불렀다. 초저녁을 장계와 함께한 여자는 또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장계에게 말하기를 달은 지고 까마귀 울어서리가 내린 아침이다. 그래서 떠나야겠다고 속였다. 장계는 모르고 그를 보냈더니 한산사의 밤중 종소리가 들려와서 여자에게 속은 것을 알고 후회했다는 것이다. 다른 해석도 있으나 생략한다. 요컨대 단풍나무는 이러한 종

은 시를 만드는데 등장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계의 시는 너무나 잘 알려졌었는데 그 뒤 내려와 청(淸) 때 왕사진(王士禛)은 형과 함께 강남의 한산사를 탐방하기로 약속했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자서 그곳을 찾아 다음의 시를 지었는데 이때도 단풍이 빚어주는 광경이 등장하고 있다.

楓葉蕭條水驛空
풍엽소조수역공
離居千里悵難同
이거천리창난동
十年舊約江南夢
십년구약강남몽
獨聽寒山半夜鐘
독청한산반야종

단풍잎 쓸쓸히 선착장을 감돌고 천리 떨어진 외로움이 한스럽다. 십년의 오랜 약속 강남의 꿈 홀로 들노라 한산사의 밤

종소리를

한산사에는 항상 단풍이 따라
다녀야 맛이 난다.

송나라 때 소식이 『소슬히 내리는 밤비 소리를 듣고져(夜雨何時聽蕭瑟)』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풍은 붉고 밤비 내리는 소리에 섞여오는 한산사의 종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황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간혹 이러한 지경에 빠져 들어가야 한다.

다음 두목의 산행시를 감상해 본다. 이 시도 이름난 절구(絶句)로서 두목이 호주(湖洲)의 자사(刺史)로 있을 때의 시라고 한다. 두목은 병든 아우와 미망인으로 된 여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직을 떠나서 호주라는 풍요로운 주의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 한다.

산행(山行)의 시

遠山寒山石徑斜
원산한산석경사
白雲生處有人家
백운생처유인가
停車坐愛楓林晚
정거좌애풍림만
霜葉紅於二月花
상엽홍어이월화

찬 기운 도는 먼 산에 오르니
돌 길은 빗겨져 있고
흰 구름 나는 곳에 사람
집이 있더라

수레를 멈추고
진한 가을 단풍을 감상하니
서리맞은 잎이 봄 꽃보다
붉더라.

타는 듯이 붉은 단풍의 경치를 바라보고 할 말을 잊은 듯 봄 꽃보다 더 하다하고 감탄하고 있다. 서리맞은 시들기 직전의 잎은 봄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시에도 해학이 붙어 다닌다. 사랑방에 시인들이 모이면 이러한 해학 만들기를 좋아하는 풍속도 있을 법하다.

말하기를 봄은 20대요, 여름은 30대, 가을은 40대 그리고 겨울은 50대 이후인데 20대 여자인 봄꽃보다 40대의 가을 단풍이 더 감상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 시가 유명하므로 이러한 부회(附會)가 등장하게 되었다.

두목이 젊었을 때 호주에서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10년 후에는 꼭 이 땅의 장관이 되어 올 터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만약 10년이 넘어도 오지 못하면 시집을 가도 좋다고 약속했다. 두목이 호주의 장관으로 된 것은 14년 후의 일이었다. 그 소녀는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두목은 그를 불러내어서 왜 기다려 주지 못하였나하고 책망을 했더니 대답하기를 10년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기에 결혼을 하였습시다 했다. 두목은 할 말이 없이 이 시를 지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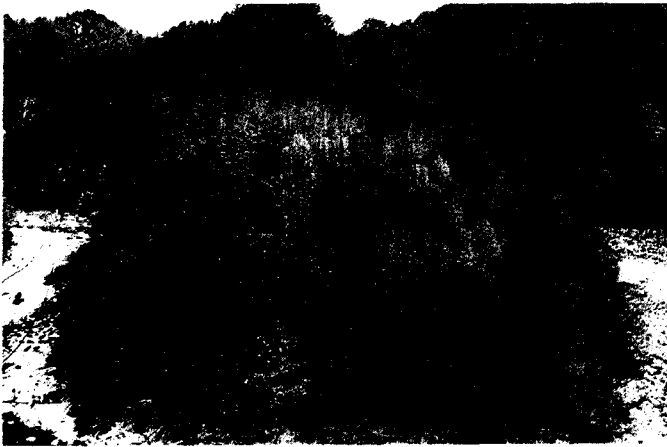
두목에 관한 사실이 아니고 둘러 붙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저러나 산에 들어가서 보는 봄 꽃보다는 가을의 단풍이 우리의 숨통을 더 막히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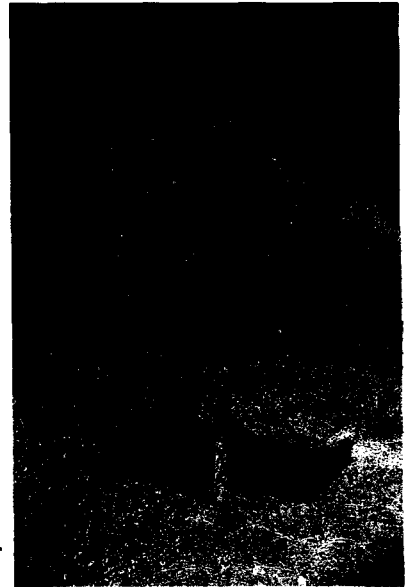
6. 생각나는 단풍나무들

내가 가장 볼만한 단풍 숲을 감상한 것은 설악산 백담사 입구 쪽에 있는 은선도였다. 양쪽으로 시내가 흘러 섬을 만들었고 온갖 나무가 모여 단풍으로 덮인 섬을 만 들었다. 단풍이란 생애의 종말을 장식하고자 하는 나무들의 몸부림침인 것을 짐작하지만 그들의 절규는 오히려 여유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내린 잘못된가. 은선도의 단풍은 능히 그 안에 선인을 숨겨둘 만한 몸차림으로서 부족이 없다. 해도 어스어스 산 저쪽을 향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백담사길 먼 것을 잊고 은선도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시냇가 나뭇가지는
물 속으로 처지고
가을 꽃 기울어져 바람을
반긴다.
서리에 타는 붉은 잎은 찬
기운에 식고
석양 나그네는 돌아가는
까마귀를 보낸다.
늪은 절간에 노승은 없고
지팡이 짚고 외로이 끊어진
다리 동쪽에 섰다.



▲ 설악산 은선도의 단풍, 1975. 10. 30.



▶ 단풍나무의 홍엽, 상원사 구내, 1994. 10. 26.

가을 단풍은 화사하고 영광에 찬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추창한 조락을 앞에 둔 서글픈 순간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岸樹倒枝皆入水
안 수도 지 개 입 수
野花傾萼盡迎風
야 화 경 악 진 영 풍
霜燃爛葉寒暉外
상 연 난 엽 한 휘 외
客送殘鴉夕照中
객 송 잔 아 석 조 중
古寺尋來無古佛
고 사 심 래 무 고 불
倚楨獨立斷橋東
의 공 독 립 단 교 동

봄 꽃의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못하지만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찬란한 시간은 원래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

무지개의 이력과 다를 바 없다. 떨어진 꽃도 꽃이고 보니 쓸어 무엇하리요 하는 낙화를 그리는 심정이 있듯이 떨어진 단풍잎도 그대로 두어 보여주고 싶다는 가난한 선비의 토로도 있어서 좋다.

欲拂柴門迎遠客
욕 불 시 문 영 원 객
靑苔黃葉滿貧家
청 태 황 엽 만 빈 가

사립문을 쓸어 먼 곳 손님을 맞이하고자 하는데 마당 돌에 낀 푸른이끼와 물든 단풍잎이 가난한 집 안을 가득 매웠으니 이것으로 손님맞이에는 족하지 않는가.

지나온 긴 인생을 고요히 살피고 욕심없이 앞날을 보내겠다는 깨끗한 정신세계에서 어슬렁거리는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부러운 상황의 인간이다.

전북 내장산의 단풍이 종단 말은 수없이 듣고 있었고 그 풍치를 보고자 몇 번인가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때를 놓치곤 했다. 단풍의 계절은 짧고, 금방 왔다간 곧장 떠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했다.

三秋岸雪花初白
삼 추 안 설 화 초 백
一夜林霜葉盡紅
일 야 임 상 엽 진 홍

삼추의 안설이 비로소 꽃처럼 희고
하룻밤 중으로 서리맞은 잎이 붉음을 다했더라.

이처럼 단풍은 하룻밤 사이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

라게 만든다.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나
중 다려 묻는 말이
풍악이 어떻더니
이 사이 연하여 서리 치니
때 만났다 하더라.

과장된 말로 화상을 입고 돌아
오노라 하는 것이 있는데 타는 단
풍으로 화상을 입었다 함은 과장
이라 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
이는 심정이 더 너그럽고 좋다.

내장산 단풍을 볼 기회가 나의
앞날에 대기하고 있을는지 궁금
해 해본다.

1957년 가을 미국 미네소타 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잘
사는 미국 가정의 저녁식사를 초
대받아 간 적이 있다. 나 혼자만
이 초대된 것이 아니고 인도 학생
등 수 명이 더 있었다. 내가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그 집
주인은 좀 당황하는 모습이였다.
이러한 때에는 밖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약 10분쯤 전에 들어가
는 것이 예의인데 그 당시 이런
것을 생각지 못했던 나로서는 다
소의 실례를 한 셈이다.

그때 그 집 아저씨는 딸인지 며
느리인지 아주머니쯤 되어 보이는
부인을 시켜 나를 한 시간쯤 자동
차로 드라이브를 시키도록 했다.
가는 곳엔 약간 높은 산허리를 지
났는데 문자 그대로 만산홍(滿山
紅)이었다. 붉나무의 단풍으로 산



▲네군도 단풍나무가 있는 길.
여의도, 1992. 5. 21.

은 뒤덮여 있었고 감탄을 넘어서
서 나의 말문은 달혀지고 말았다.
그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붉나무는 단풍나무류는 아니지만
그 가을 색깔은 창조주의 가장 만
족스러운 작품의 하나였다. 나는
그때의 광경을 종종 회상하곤 한
다.

네군도단풍나무는 지난날 우리
나라에 더 심어졌으나 지금은 그
식재가 좀 뜸한 상태이다. 한때
미국 흰불나방의 해가 심할 때 특
히 네군도단풍나무는 공격의 표
적이 되었고 이 나무 때문에 모두
들 골치를 앓았다. 학교 운동장
주변에 있는 네군도단풍나무는
교장선생님이 가장 짜증스럽게
여기는 나무로 되었고 그래서 그

들 나무는 수가 줄어들었다.

흰불나방의 해가 거의 없다시
피한 지금에 와서는 네군도단풍
나무의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다
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있
고 좋은 녹음을 만들고 수세가
강하다. 나는 몇 해 전 만주 길림
에서 가로수로 심어진 멋진 네군
도단풍나무를 본 적이 있다. 추위
에 견디는 힘이 무척 강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요즈음 서울 여의도에 살
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가까운 곳
에 네군도단풍나무가 줄로 심어
지고 자동차길 보도를 덮어 한 여
름에는 초록의 터널을 만들어 주
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의 마음파
져 푸르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나무심기의 작품은 앞으로 더 있
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
중에는 외국산의 나무이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국수주의자가 있
는데 무척 마땅하지 못한 사람들
이다.

독일 프라이브르크 시에 가까
운 프랑스 국경지대에서 나는 잎
에 흰 무늬가 들어 있는 네군도단
풍나무의 품종을 본 적이 있는데
좋은 조경수의 구실을 하고 있었
다.

1994년 10월 26일 월정사를 지
나 상원사로 갈 때 나는 상원사
가까운 곳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붉은 단풍나무를 본 적이 있다.
그 붉음이 유리처럼 투명한 것 같



▲네군도 단풍의 변종,
독일 Braisach, 1988. 7. 26.

있고 한 잎도 빠짐없이 같은 색깔 내기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무는 단독으로 존재해도 아름답고 무리를 지어 있어도 좋다. 때로는 단독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미의식을 더 강조해 준다.

중국단풍나무의 좋은 가로수를 본 것은 무주에서 덕유산리조트로 들어가는 양길가에서였다. 우리나라 고유의 산천 경관을 찾아 들어가는 길 가에 중국수종이 웬 말이나. 이제 민족정신도 흐려지게 되어간다는 평도 받았으나 나의 의견으로서는 성공한 가로수라고 보았다. 나무의 모양이 좋고 건강했고 봄, 여름, 가을의 잎의 채색이 좋았다. 그 밖에도 중국단풍나무를 심은 곳이 있는 것으로



▲중국단풍나무, 금산사 근처,
1992. 10. 20.

알고 있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들을 우리의 경치에 귀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생태계에 이질성이 도입됨으로 걱정스럽다는 염려가 있으나 괜찮다. 우리 것만을 가지고 꼭 살아가야 한다는 폐쇄적인 생각은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물론 이때에도 경우에 따른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공원이나 가로수에서 단풍나무 종류를 만나게 된다. 어디에나 많은 종류로 노르웨이단풍나무(Acer platanoides)가 있다. 잎 모양이 대충 플라타너스를 닮아 있어서 혁명 안에 그 뜻이 들어있다. 북쪽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남쪽으로는 그리스 및 이탈리아에 심어지고 있다. 수고 25m에 달해서 더욱 플라타너스를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줄기 색깔이 검정이고 수피가 벗겨지지 않는 특성이 플라타너스와 쉽게 식별되게 한다. 가을에 붉게 단풍이 든다.

유럽에 많은 것으로 필드단풍나무(Field maple, A. campestre)가 있다. 수고가 15-20m에 이르고 흔히 줄기가 꼬이는 모양을 보이고, 잎이 3~5갈래로 비교적 얇게 갈라진다. 열매는 수평으로 벌어진다. 필자는 이것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볼 수 있었다.



▲필드단풍나무, 독일 프라이부르크, 1988. 7. 27.